

24 원피 가공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

성별	남	나이	42세	직종	원피 가공업	업무관련성	낮음
----	---	----	-----	----	--------	-------	----

1 개요

근로자 S는 A사에 2006년 2월에 입사하여 소 생피를 약품을 이용하여 털을 녹이는 작업을 담당하였고 2008년 4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받았다.

2 작업내용 및 환경

근로자 S는 원피(피혁)가공업체 A사에 2006년 2월 입사하여 주 업무는 패들 작업대 내에 원자재(소 생피) 및 소다회, 세제류, 부자재 등을 투입하여 털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그 외 작업 전 약품준비 및 기계점검, 원피 투입 전 바닥 청소, 지게차 팔레트 치우기를 하였다. 패들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이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아, 패들 공정과 같은 층 인접한 위치에 있는 태고 작업 공정의 2006년~2008년 작업환경 측정 자료를 검토한 결과에는 벤젠이 검출된 공정은 없었다. 근로자 S가 취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13가지 물질 중에서 액상 상태인 5가지 물질 및 인접한 태고 공정의 액상 물질 1가지의 벌크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벤젠은 검출되지 않았다.

3 의학적 소견

근로자 S는 흡연력은 20년간 하루 1.5-2갑, 음주력은 매일 소주 1병 정도이다. 당뇨, 고혈압, 간염, 결핵등에 대한 과거력은 없었으며, 이전 직업에서 유

기용제 폭로나 방사선 폭로력은 없다고 하였다. S는 2008년 4월 22일 다리에 힘이 없고 헛기침, 콧물, 열이 나서 인근 병원 방문 후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되어 골수검사 후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받았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원인으로는 유전, 방사선, 화학약품과 직업적 노출, 약물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백혈병을 일으키는 물질로는 전리방사선, 벤젠, 세포독성 약제 등이 잘 알려져 있고, 에틸렌 옥사이드, 1,3-부타디엔 등도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S가 A사에 근무하면서 사용한 화학물질 중에서 벤젠을 확인할 수 없었고, 입사 이후 상기 질병의 발생까지 2년 2개월 20일로 일반적인 벤젠 또는 전리방사선 등의 노출로 인한 백혈병 발생의 잠재기에 비해 짧았다. 벌크 시료 분석에서도 벤젠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현장 방문 조사에서 S의 작업 동선에서 전리방사선을 발생할 수 있는 기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S가 주장한 업무상 과로로 인한 상병 발생 가능성은 문헌 검토 상 인정되기 어렵다.

4 결 론

근로자 S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확진되었는데,

- ① 백혈병의 원인으로 잘 알려진 벤젠 및 전리방사선 등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 ② 작업경력이 2년 3개월로 백혈병 발생의 잠재기가 짧으므로

현재의 결과만을 가지고 작업관련성을 판단할 때, 작업 중 노출된 유해인자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었다.